

친숙한 기이한: 정면으로 바라보기

- 존재: 언어로 규명되지 않는 모호한 것들

박한나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명주는 도예작가이다. 그녀는 국내 활동 이전에 유럽 등지에서 작품발표를 꾸준히 해왔고 도자조각과 페인팅, 드로잉을 병행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녀의 작품은 내용과 형식, 기법 측면에서 다양한 서사를 가지지만 대체로 조형성에 큰 관심을 받은 한다. 그녀의 독특한 도자조각은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추상의 형상에 덩어리감이 확연한 점토로 빚어지고 고온에서 구워낸 깊은 발색과 두텁게 발라져 흘러내리는 동적인 반 유리질의 유약은 생명력을 지닌 듯 신비함을 머금고 있다. 작품은 대개 식물과 인간이 결합되거나 반추상의 머리 혹은 ‘흐르는 흐름 자체가 표정’인 얼굴의 모습이다.

암시적 모호함이 가득한 이 신비로운 형상에 눈길이 가는 것을 비평가 프레데릭 보데(Frédéric Bodet)는 “흘러내리며, 방향하고, 변화 중인, 유령과 같은 존재가 [...] 우리 안에 내재한 최초의 두려움을 깨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 좌대 위에 놓인 형상들은 마치 제단에 올라간 성스러운 희생양처럼 고통과 폭력을 감내하고 승화된 존재로 다가온다. 인류가 범한 원죄와 욕망을 대신해 엄벌을 받은 듯 그녀의 형상에는 잔혹한 아름다움과 고귀한 고통이 서려 있다.

김명주의 작품에는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통제와 수용 등 서로 대립되는 관념이 모여 있다. 작가는 고집스럽게 상반된 두 요소를 타협이나 변형 없이 순수하게 공존시킨다. 빛과 어둠은 작품에 엮보이는 아름다운 고통, 죽음과 부활, 승고와 같은 상호 대립적인 의미의 결합 뿐 아니라 물리적 음영의 효과도 포괄한다. 작가는 작품 연출 단계에서 밝음과 어둠의 극적 대비를 이용해 엄숙하고 경건한 효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의식과 무의식은 작업과정을 압축한 표현이다. 내면세계에 몰입하여 그린 반자동적 드로잉과 이를 형상화하는 조각 단계에서 발휘되는 의식적 치밀함이 그것이다. 통제와 수용은 작가의 타협없는 강경함과 우연성을 수용하는 도자의 관용적 성질의 만남이다. 도자는 소성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형상은 열기에 의해 수축하고 최종적인 색감은 가마 안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도자예술의 매력이자 불편함이다. 작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수용하면서도 엄격함을 유지하며 작품을 려러 차례 구워 자신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작품을 창조한다. 일한 방식을 거쳐 창조된 작품은 이질적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경계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강렬한 정동과 기이한 매혹을 전하게 된다.